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개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21세기 한국 대표 화가인 김병중 화백은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로, 그간 '바보 예수', '생명의 노래' 연작을 통해 국내외 해외에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 40년 동안 세련된 현대미술 속에 한국적인 여운과 정서가 관통하면서 주제 면에서 몇 번의 큰 변화를 작품 속에 선보여 왔다.

특히 그의 작품은 동아시아 철학의 정신성이 표현되었고, 특별히 동아시아 정신에 입각한 그의 '생명의 노래' 시리즈는 '생명'을 바탕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듯 자유롭게 한국적 미학을 표현,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이런 그를 두고, 고 이어령 문화평론가는 작고하기 얼마 전 김 화백에 대해 '날치가 물을 차고 오르듯 힘찬 붓질과 아름다운 색채로 생명의 시를 쓰는 화가'라고 평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은 그런 김병중 화백이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화폭에 펼쳐온 회화 세계를 총 4부(2022. 9. 2~ 2023. 10. 29)에 걸쳐 펼쳐 보이는 전시(약 200여점)다.

1부는 9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미술관 전관에서 제1부 <화홍산수, 송화분분(松花粉紛), 풍죽(風竹)>을 선보이며, 미술관 관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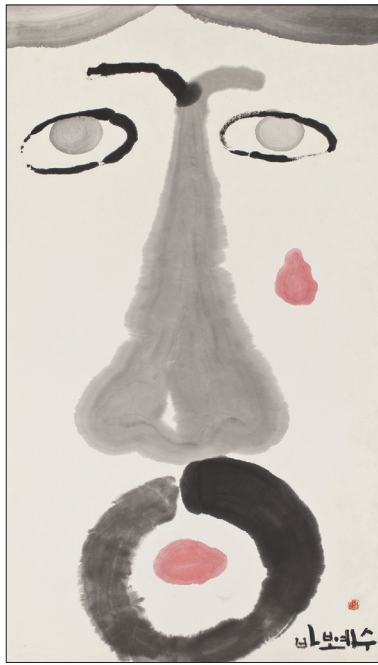
"제 1부 전시에서는 작가가 말하려는 '생명의 순환'에 대해 많은 관람객들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며 작품마다 생명, 또는 삶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고찰이 묻어 있어 있음을 시사했다.

2부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제2부 <바보 예수, 상선약수(上善若水)>가 펼쳐질 예정이며, 제3부 <순으로>는 생명의 작가답게 자연을 소재로 한 생명 시리즈의 부분으로 이뤄진다.

내년 3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작가의 유년기 기억이 대담한 붓질로 발현돼 표현되며, 영국 대영박물관과 캐나다 온타리오 뮤지엄에 소장된 만큼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여운과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마지막 제4부 <길 위에서-남미부터 북아프리카까지>에서는 작가가 남미와 북아프리카 여행 중 깨달은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긴 작품들이 2023년 7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시되며,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특별전은 총 4부로 구성해 마무리된다.

한편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400점이 넘는 작품을 김병중이 남원시에 무상기증하면서 콜렉션의 기반을 갖춰 2018년 3월에 개관한 전원형 미술관이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관람료는



김병중 화백 '바보 예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566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남희 '채송화' 전민주 '전주카페' 최정은 '손예진 초상화' 홍시연 '승학도'

라벤더가든 단체전 '같이 또 다르게'

전주수목원 교육홍보관서 6~18일 4인 4색 특별전 진행

회화단체 라벤더가든 단체전이 전주수목원 교육홍보관에서 9월 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4인 4색전으로 수채화, 풍경화, 초상화, 민화 등 장르가 다른 그림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오남희는 사과꽃, 콩꽃, 채송화, 명자꽃, 능소화 등 계절을 환하게 밝혀주는 주변의 꽃들을 화폭에 옮겼다. 흔해서 평범하지만 뜻밖의 것들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포착해 투명하고 선명한 수채화로 꽃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연작을 그리고 있다.

정민주는 전라북도 곳곳의 풍경을 담고 있다. 고즈넉한 맛이 있는 한옥마을, N자 구도가 돋보이는 익산 커피그루 골목, 모내기를 앞둔 완주 화전교회 주변 논, 친구가 자주 찾는 기린봉 약수터, 날씨 좋은 오후 한가한 고창 청보리밭 등이다. 무심코 지나치는 소소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캔버스에 담았다.

최정은은 윤여정, 손예진, 한지민, 한소희, 오드리헵번 등 유명인의 초상화에 동물과

지 아크릴물감으로 섬세한 터치를 반복하며 쌓아올려 세밀하게 그려냈다. 좋아하는 사람을 화폭에 담아보고 싶다는,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지 못한 소망을 구현해냈다.

홍시연은 전통민화보다는 명도를 높이고 채도는 낮춘 밝은 색감을 활용해 발랄한 현대민화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은 진부하고 구닥다리라는 편견을 가질 법한 세대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오남희는 대한민국 아카데미미술대전에서 입상했다. 정민주는 전주미술관 골목그림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최정은은 전국벽골 미술대전 특선 수상과 한국예술문화원 서화회원 초대전에 참여했다. 홍시연은 전라북도 미술대전과 전국벽골미술대전에서 입상했다. 라벤더가든에 담긴 4인 4색의 특별한 전시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단, 월요일과 추석 당일은 휴무.)

/김재훈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12회 기념공모전 입상작 선정

대상 윤영석 전각작품 '하늘을 담은 너의 가슴' 등 총 163점 입상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제12회 기념공모전을 개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06점의 작품이 출품돼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35점, 입선 124점 등 총 163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모 부문은 총 6개로, '한글, 한문(전·예·해·행소), 문인화, 전각, 서각, 기타(융합적 실험작품)'으로 구분해 서예작품을 공모, 그 결과 306점이 출품됐다.



윤영석

대상에는 윤영석씨의 (1971년생·부안) 전각 작품 '하늘을 담은 너의 가슴'이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정선숙씨의(1959년생·서울) 한글 작품 '벼슬을 저마다 흥·면', 양순옥씨의(1954년생·전북) 문인화작품 '묵

란(저녁기도)', 홍영택씨의(1972년생·충북) 행서작품 '만해선생시 즉사(萬海先生詩 卽事)'가 선정됐다. 전체 입상작에 대한 심사결과와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기동 심사위원장은 "한글 문인화 한문 전각 등 각계가 고르게 출품되고, 수준 높은 작품들도 많았다"며 "특히 다른 서예 공모전보다 전각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작품성 또한 아주 뛰어났다"고 총평했다.

한편 수상작은 10월 14~2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전시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리뷰 체험단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2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의 작품개선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리뷰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재단 및 전북상설공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리뷰 체험단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선발된 체험단은 판

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을 무료 관람하고, 본인의 블로그 또는 SNS에 공연리뷰를 남기면 된다.

리뷰 체험단은 오는 8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북상설공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10월 리뷰 체험단 신청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한편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은 서동(백제 무왕)이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한 신라 왕궁에서 도망친 선화공주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공연은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과 금·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관람가는 전 좌석 15,000원이며, 전북 도민은 10,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상설공연 SNS 확인 및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6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 공연장 상주단체 '사랑의 묘약, 벽골제를 찾은 약장수' 공연

김제문화예술회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 묘약, 벽골제를 찾은 약장수'가 상주단체 사)드림필 하모니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개최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과 전래동화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퓨전한 '사랑의 묘약, 벽골제를 찾은 약장수' 공연으로 준비했다.

공연은 큰 병에 걸린 용왕님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 하여 토끼를 잡았으나,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괴담을 풀어 용궁에서 탈출하여 김제 벽골제에 숨게 된다.

마침 김제 벽골제에 민병통치약을 팔러 온 약장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약장수의 민병통치약인 사랑의 묘약이 시골 청년 네모리노와 아디나의 사랑을 이어주게 되자 그 사랑의 묘약을 용왕님에게 바치게 되는 내용으로 이리, 2중창, 3중창 등의 곡들로 선보인다.

관람권 예매는 6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배부하며 전 좌석 무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